

## 2016년도 연극 창작산실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심사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6년도 연극 창작산실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심의 : 2016. 4.18(월) 14:00, 아르코예술극장 2층 회의실1
  - 2차 심의 : 2016. 5.13(금) 14:00, 아르코예술극장 2층 회의실1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재공연지원 연극분야에 총 47개의 단체가 응모했다. 그간 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 선정작만을 대상으로 재공연지원을 했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지원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지원심의는 1차 서류심의, 2차 프레젠테이션심의로 두 차례를 진행했다. 심의기준은 공연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30%), 작품의 예술성(40%), 작품의 파급효과(30%)였다. 또한, 일반 관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연극뿐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이 재공연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 심의위원회는 지원신청서, 대본, 공연 영상을 검토해 1차 서류심의를 진행했고, 2차 심의에서는 공연계획 프레젠테이션(작품당 10분) 및 질의응답(작품당 5분)을 통해 재공연 최종 지원 작품을 선정하였다.

일반, 어린이·청소년 분야 모두 다양한 형식과 주제를 가진 좋은 작품들이 많았지만, 거의 신작에 가까울 정도로 공연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초연과 차별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만한 개선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아쉬움이 남았다. 모든 작품들을 지원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 중에서 지원작을 선정해야 했기에 심의위원들은 심의기준에 따라 작품의 완성도와 영향력, 예술적 가치, 공연문화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심의했다. 전통과 고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접목한 작품, 미디어를 이용해 공간감과 극적인 표현을 극대화하는 작품, 일상에서의 인간내면과 관계를 다룬 작품, 존재와 망각이라는 관념을 미학적으로 다룬 작품,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 등이 본 심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원단체들의 많은 고민과 노력이 금번 지원준비에 담겨져 있음을 알기에 심의위원들 또한 많은 토의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선정된 작품은 모두 초연에 비교하여 뚜렷하고 타당한 작품 개선계획, 관객 개발 계획 등을 지닌 것으로 판단했다. 지원신청서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제안한 계획들을 모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을 결정한 것임에 따라 해당 계획이 꼭 실현되기를 바란다. 재공연지원을 통해 선정 작품들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관객과 만나기를 기대한다.

201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연극분야 심의위원 일동